

『노동리뷰』 5월호 - 이슈분석

■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금재호 · 윤미례)

- 우리나라의 비농 부문 자영업주 비중은 24.1%, 무급가족종사자는 4.8%로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여성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고용불안, 재취업 어려움 등으로 인해 40대 이상의 근로자들의 자영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 저학력 노동시장 퇴출과 고학력화 현상 등으로 인해 고학력 자영업주의 비중 증가
- 후진적 유통구조와 자영업주의 영세함으로 인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음.

문의처 :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 Tel : 782-7186 E-mail : keum@kli.re.kr
윤미례 연구원 Tel : 784-7536 E-mail : ymr@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차별관행 실태-채용차별을 중심으로

담당자	금재호 연구위원 윤미례 연구원
전화	02)782-7186 02)784-7536

- 2004년 우리나라의 비농 부문 자영업주 비중은 24.1%, 무급가족종사자 4.9%로 비임금근로자가 29.0%에 달하여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여기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비농 전산업으로 분석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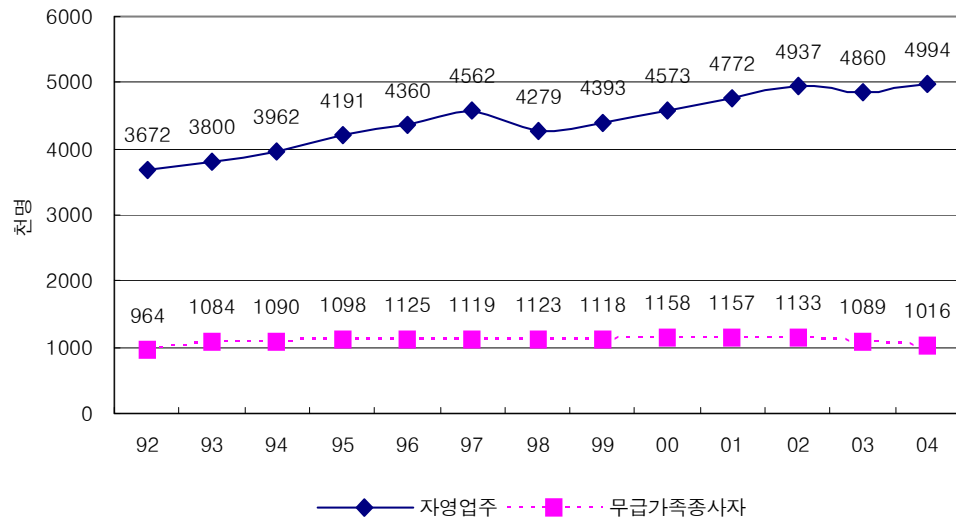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수
	소계	자영 업주	가족 종사	소계	상용	임시	일용	
1982	36.5	28.0	8.4	63.5	46.5	8.9	8.0	9,767
1983	35.0	27.1	7.9	65.0	46.9	10.4	7.7	10,190
1984	31.9	24.9	7.0	68.1	45.3	13.7	9.1	10,514
1985	31.8	24.9	6.9	68.2	44.6	14.0	9.6	11,237
1986	32.2	25.2	7.0	67.8	37.5	20.3	10.0	11,843
1987	31.2	24.5	6.7	68.8	38.7	20.2	10.0	12,774
1988	30.7	24.1	6.6	69.3	39.6	20.1	9.6	13,386
1989	28.4	22.3	6.1	71.6	40.0	20.7	10.9	14,123
1990	27.9	21.8	6.2	72.1	39.7	21.0	11.3	14,848
1991	27.9	21.7	6.1	72.1	40.6	20.8	10.8	15,924
1992	28.4	22.5	5.9	71.6	41.6	19.9	10.1	16,342
1993	29.3	22.8	6.5	70.7	42.1	18.9	9.6	16,642
1994	29.1	22.8	6.3	70.9	41.5	19.8	9.7	17,357
1995	29.4	23.3	6.1	70.6	41.5	19.7	9.4	18,012
1996	29.6	23.5	6.1	70.4	40.3	20.8	9.2	18,530
1997	30.0	24.1	5.9	70.0	38.3	22.1	9.5	18,929
1998	30.8	24.4	6.4	69.2	37.2	22.9	9.2	17,541
1999	30.6	24.4	6.2	69.4	34.0	23.5	11.9	17,989
2000	30.3	24.2	6.1	69.7	33.7	24.2	11.8	18,913
2001	30.5	24.6	6.0	69.5	34.5	24.2	10.8	19,424
2002	30.2	24.6	5.6	69.8	34.1	24.2	11.5	20,100
2003	29.5	24.1	5.4	70.5	35.9	24.7	9.9	20,189
2004	29.0	24.1	4.9	71.0	36.7	24.4	9.9	20,7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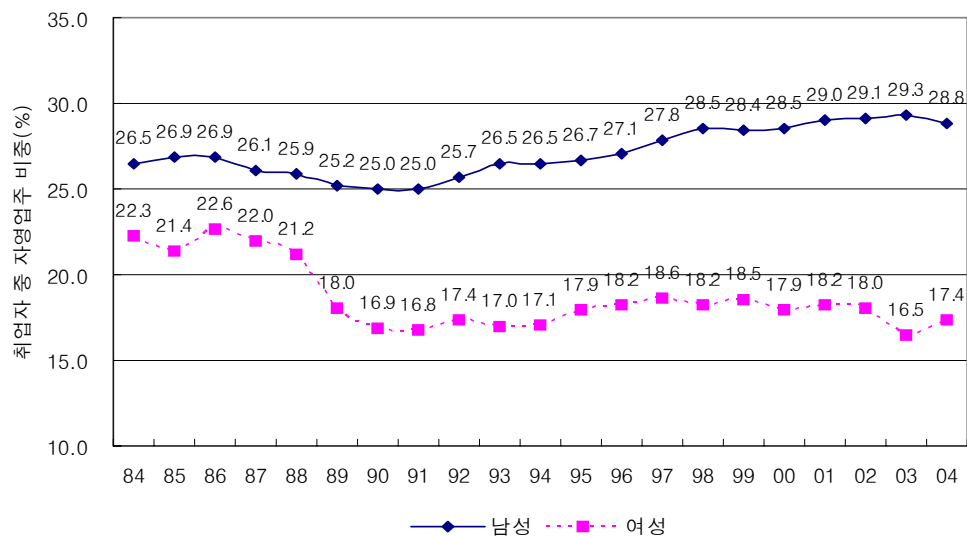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와 자영업주의 증가가 발견됨

- 취업자 절대 숫자에서 비농 부문의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1998년 1,123천명에서 2004년 1,016천명으로 9.5% 하락하였으나 자영업주는 같은 기간 4,279천명에서 4,994천명으로 16.7% 늘어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성별로 1990년대 이후 여성 자영업주 비중은 17.0%~18.6%의 범위에서 안정적인 반면, 남성은 1991년에 25.0%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완만한 형태의 U자형 추이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자영업 근로자가 1982년 1,427천명에서 2004년 3,428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20대는 같은 기간 오히려 그 수가 줄었고, 30대는 소폭 상승한 것에 그침

- 이러한 추세는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중·고령자들의 취업난을 반영

(단위: 천명)

종사상 지위	연도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자 영 업 주	1982	9	415	888	818	442	166	2,739
	1983	7	403	891	849	441	174	2,766
	1984	3	365	848	833	413	161	2,623
	1985	3	385	936	855	437	177	2,793
	1986	4	398	1,028	889	473	196	2,988
	1987	5	416	1,078	925	502	200	3,126
	1988	3	415	1,120	978	516	196	3,227
	1989	4	361	1,056	995	542	194	3,152
	1990	4	342	1,098	1,017	562	209	3,232
	1991	2	390	1,266	1,015	567	222	3,462
	1992	4	402	1,371	1,050	603	241	3,672
	1993	2	384	1,445	1,104	639	225	3,800
	1994	2	364	1,481	1,190	681	244	3,962
	1995	18	408	1,516	1,288	702	260	4,191
	1996	18	397	1,567	1,376	725	277	4,360
	1997	20	420	1,570	1,470	762	321	4,562
	1998	17	377	1,428	1,423	725	309	4,279
	1999	14	354	1,402	1,503	767	352	4,393
	2000	12	340	1,410	1,618	809	384	4,573
	2001	15	317	1,432	1,718	857	433	4,772
	2002	14	316	1,407	1,810	925	465	4,937
	2003	16	305	1,331	1,841	927	439	4,860
	2004	11	260	1,295	1,887	1,031	510	4,9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고졸 학력의 자영업주는 1982~2004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하였고, 전문대졸의 자영업주도 같은 기간 8배, 대졸이상의 경우 같은 기간 220천명에서 1,044천명으로 약 4.7배 증가한 반면, 초등졸 이하는 같은 기간 중 46.1%가 감소하였고, 중졸 자영업주는 7.9% 증가에 그침

- 이처럼 자영업주의 고학력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저학력 자영업주의 노동시장 퇴출과 고학력자들의 창업 활성화에 기인한 현상

(단위: 천명)

종사 상 지위	연도	학력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자 영 업 주	1982	1,031	655	797	36	220
	1983	995	648	847	35	240
	1984	833	619	878	27	266
	1985	831	671	950	31	310
	1986	875	708	1,043	40	322
	1987	870	754	1,134	44	323
	1988	809	766	1,241	45	365
	1989	750	705	1,245	61	391
	1990	717	707	1,325	86	397
	1991	673	753	1,492	108	436
	1992	651	776	1,628	126	491
	1993	646	729	1,740	139	547
	1994	655	761	1,830	154	561
	1995	630	811	1,991	172	587
	1996	626	837	2,069	194	634
	1997	657	880	2,165	233	626
	1998	558	705	2,073	185	758
	1999	602	731	2,089	219	752
	2000	609	756	2,188	245	776
	2001	632	735	2,333	252	820
	2002	618	733	2,445	271	872
	2003	530	673	2,347	278	1,032
	2004	556	707	2,387	300	1,0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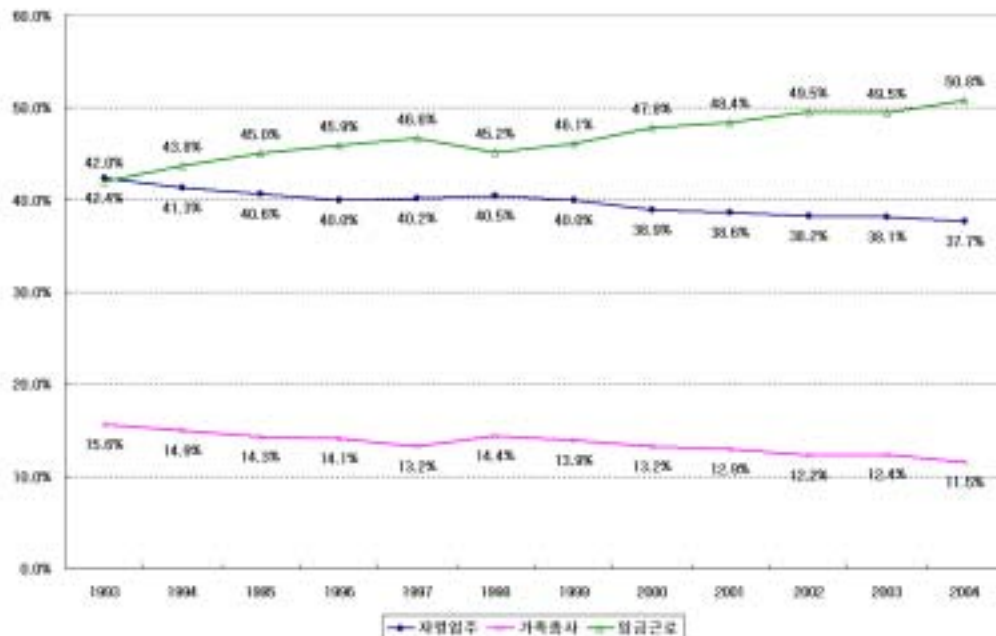
- 자영업주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숫자는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1993년~2001년 사이 31.1%증가
- 서비스업 내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2004년 전체 자영업주의 36.1%인 2,209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성장률 측면에서는 개인, 공공 서비스 업종과 전기·수도·가스 및 금융업에서 자영업주의 증가가 두드러짐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형화·전문화 등의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해 이들 산업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 임금근로자는 1993년 42.0%에서 2004년 50.8%까지 높아진 반면, 자영업주는 42.2%에서 37.7%로 낮아짐. 특히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동기간 15.6%에서 11.5%로 감소해 생계형 또는 가족형 자영업이 이들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

(단위: 천명)

종사상 지위	연도	농림 수산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총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자 영 업 주	1993	1,458	542	3,259	266	2,070	288	635
	1994	1,414	547	3,415	293	2,172	292	657
	1995	1,378	559	3,632	319	2,201	324	788
	1996	1,350	569	3,791	342	2,276	351	822
	1997	1,340	582	3,980	359	2,359	382	879
	1998	1,338	503	3,776	317	2,253	349	857
	1999	1,310	533	3,859	290	2,295	379	895
	2000	1,291	559	4,014	323	2,324	419	950
	2001	1,279	554	4,217	343	2,269	468	1,137
	2002	1,253	549	4,388	382	2,293	525	1,189
	2003	1,183	507	4,353	431	2,230	512	1,180
	2004	1,116	499	4,495	430	2,209	559	1,2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